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경애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안식처 되신 하나님 (수 20: 1-9)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용서가 감사의 시작입니다”(로마서 12:19-20)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묶임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본문 19 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풀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원수갚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 장 20 절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앞부분 즉 원수들에게 똑 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더 강한 방법으로 응징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즉 용서해주고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 절 말씀의 뒷 부분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사람의 맨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맨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면 머리가 숯불에 타 태워지든지 그 뜨거움에 아마 참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의 맨머리위에 숯불을 쌓은 것이 아니고 머리 위에 이고 온, ‘화덕’ 안에 숯불을 차곡차곡 담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이 필요하여 찾아온 원수에게 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가 염치 불구하고, 밀저 받자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혹은 나하는 마음으로 찾아 왔을 때 적당히 한 두개 정도가 아니라 화덕에 쌓일 정도로 풍성하게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머리위에 화덕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어 그와 막힌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묶임을 푸는 용서의 마음이고 이 마음의 풀림, 즉 용서를 시작해야 감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붙잡고 고백하는 선택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감사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선한 모습으로 돕고 간섭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추수 감사예배 - 11 월 23 일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3. 온라인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를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전도회 월례회 - 11 월 30 일 주일은

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행사 및 모임

| | | |
|------|---------|----------------|
| 11 월 | 추수 감사예배 | 11 월 23 일 (주일) |
| 11 월 | 각기관 월례회 | 11 월 30 일 (주일) |
| 12 월 | 성탄 주일예배 | 12 월 21 일 (주일)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 | 11/16 | 11/23 | 11/30 | 12/07 |
|------|-------|-------|------------|-------|
| 대표기도 | 유 경애 | 심 영민 | 김 영란 | 손 다니엘 |
| 헌화성도 | 유 영민 | 정 명희 | 차 은희 | 심 영민 |
| 봉사당번 | 사랑구역 | 믿음구역 | 각기관 월례회 | 믿음구역 |

예배출석자 및 헌금

| | |
|-----------|--|
| 지난주 예배 출석 | |
| 지난주 헌금 통계 | |

후원 선교지 안내

| 구역 | 구역인도자 구역장 | 연락처 | 선교사 |
|------|--------------|--------------|------------------|
| 사랑구역 | 유 경주 | 510-634-9374 | 정 주환(소망공동체) |
| | 유 경애 | 925-719-3673 | 장 철호 (미얀마) |
| 믿음구역 | 심 영민 | 415-205-2631 | 박 완주(헝가리집시) |
| | 손 정임 | 808-277-1072 | K 선교사 (Malaysia) |
| 소망구역 | 조 현숙 | 510-396-6952 | 김 정림 (탄자니아) |
| | 한 영미 | 510-410-8718 | 조 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 | |
|----------------------|------|
| 새가족 성경공부 | 4 주 |
| 확신의 삶 | 7 주 |
| TEE 성경공부-12 주 | 12 주 |

한국에서의 만남들

지난 주 휴가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산지 40 년만에 가을에 한국에 나온것은 처음이라 한국의 가을 날씨와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장인 어른이 나이들므로 인하여 오는 노년의 연약함으로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뇌졸중과 치매, 거동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큰 딸과 사위를 오래만에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겹쳤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점을 어려운 발걸음으로 함께 찾아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구역에서 후원하고 있는 구미김천에서 사역하고 계신 정주환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지 못하게 오래전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두 후배 목사님들도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고 함께 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한분은 한국에서 국제 학교를 섬기고 계시고, 한분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사역자로 섬기다가 일본에서 10 년간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기도함 속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80 을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 및 고아 출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소망 공동체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계신 정주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는 짧은 교제의 시간이었지만 너무 반갑고, 기쁘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고 하시니 그것또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국에 나가시면 시간을 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릴 적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 친구들과의 만남도 두 차례에 걸쳐 가졌습니다. 어릴 때는 빠짐없이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대부분이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 나가 주일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 친구들도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혀 삶으로 신앙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삶의 행복도, 소망도, 기쁨도 없이 세상 흐르는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 삶을 나누어도 "진수 너는 목사니까. 너는 우리와 다르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진 모습에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구별된 삶을 보이며,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만나주심, 만져주심,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더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만남들이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 | | |
|--|---|---|
|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본당 <i>Main Sactuary</i> |
|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
|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
|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
|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 본당 <i>Main Sactuary</i> |
|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 매 월 <i>Monthly</i> |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 | | |
|--|--------------|------------------------|
|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i> | 510-415-0671 | timjdsn@gmail.com |
|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 951-295-4769 | Erik.Komoto@gpmail.org |
|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 510-415-1696 | Ejoysong@gmail.com |

교회약도 *Church Map*

